

■ 올 광주 미술대전 심사 까다로워진다

작품 사진으로 예심, 출품자 노출 방지

광주시미술대전을 주관하는 광주미협이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와 응모자를 배려한 사진 접수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미협은 올초 불거진 지난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리도 공모전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회째를 맞는 광주시전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광주미협(회장 정광주)은 25일 제20회 광주시전 심사가 실시되는 한국화와 서양화 부문에 1, 2차 심사와 사진 접수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당일 입선, 특선, 최우수상, 대상 등 수상작을 한꺼번에 가리는 형식에서 벗어나 1차 심사(예심)와 2차(본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심사 공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상작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공모작 뒷면에 출품번호와 작가의 이름 표지를 붙여 출품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존관행을 없앴으로써 부정의 발미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작가 A씨는 "공모전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어 작품이 끊이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화·서양화 우선 도입 전 부문 확대

작품 뒷면 이름 없애고 예심·본심 분리



광주시미술대전을 주관하는 광주미협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전 심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광주시미술대전 심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기에서 미협은 주최측 편의로 진행되는 공모전 심사를 작가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사진 심사제를 도입했다.

사진심사제는 출품작의 사진을 응모자가 촬영해 주최측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진 심사제는 응모작가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출품작 수도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시전은 그동안 회화의 경우 80~100호 이상 대작을 출품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작가들은 공모작 표구비용(15만~20만원)과 운반비 등을 부담해야 했다. 낙선자들은 규모가 큰 출품작을 둘러보는 데도 별도의 운송비용을 감당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사진 심사제는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진 촬영 작품을 심사위원들이 번갈아 심사하면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작품을 예심 통과작으로 채택한다.

본심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작품들을 제출받아 실물심사로 실시한다. 실물심사는 사진심사에서 놓칠 수 있는 작품의 완성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다.

광주미협은 이같은 제도를 올해 한국화와 서양화에 우선 도입한 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조각을 제외한 미술대전 9개 전 부문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 있다.

정광주 광주미협회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꾸준히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광주시전의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한국화, 서양화 부문 점수를 시작한 광주시미술대전은 오는 8월7일까지 출품작을 제출받는다. 심사결과 발표는 오는 8월10일, 문의 062-222-805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린이 영어 연극 '리틀 드래곤'

여름방학 아동극 만나요

어린이 연극 잇따라 공연...28일 '리틀 드래곤' 무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이 열린다. 어린이 영어 연극 전문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리틀 어린이극장은 어린이 영어 연극인 '리틀 드래곤'을 무대에 올린다. 28~29일 오후 1시·4시 광주 광산문화회관.

지난 2002년 초연한 '리틀 드래곤'은 지금까지 두번의 앙코르 공연을 거치면서 10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작품으로 올해 세번째 열린 서울 공연에서는 관객 점유율 95%를 기록했다.

우주에서 떨어진 아기공룡이 자신과 똑같은 친구를 찾아 지구 곳곳을 다니며 겪는 모험을 그린 '리틀 드래곤'은 서정적인 음악과 섬세한 인형 연기,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차례 열리며 티켓 가격은 8천원이다. 문의 062-221-1942

호주 출신 로저 린드셔와 피터 윙클러가 연출과 음악을 맡았으며 폴 매튜스, 제레미 나이트, 박영희 등 국내외 배우들이 출연한다. 한국어 자막은 제공되지 않는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2-560-09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족·이웃,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

'여림회' 전시회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동갤러리

전남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출신 여림 화가로 구성된 '여림회(如林會)'의 10번째 전시회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1997년 모임 결성후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온 회원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소소한 삶의 아름다움을 꾸밈없이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구례북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김광해씨는 가족들의 모습을 유쾌하고 따뜻한 시각에서 풀어낸 '순간-그냥 멈춰버려도 좋을-' 등을 수묵담채로 선보이며 김묘정(순천 왕지초)씨는 개를 주인공으로 한 '복돌이의 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그밖에 강선영, 김미아, 박주리, 장용림, 조선아씨 등이 출품했다. 문의 062-222-007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광해 작 '한세트-날개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류, 아시아 일상속에 자리잡아야"

한류는 때때로 한국적인 문화현상이 아니라 아시아 대중의 일상에 스며들어 인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27일 경희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한류에서 신한류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한류의 정체성과 세계 속의 한류"란 제목으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한류는 하나의 문화코드로 존재하다 사라질지, 현지 문화 안으로 소화될지 선택의 길에 서 있다"며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류는 세계인이 한국적 문화를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 지속

할 수 있으므로 한류의 미래는 한류라는 기표가 소멸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다"며 "한국 대중문화에 존재하는 자원들이 세계 시장에서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마크 러셀 할리우드 리포트 기자는 심포지엄에서 '좀비 웨이브 - 이미 죽은 걸 죽일 수 없다'는 주제를 통해 한류의 허상을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의 '자주' 분위기를 경계한다.

그는 "한류는 애초에 살았던 적이 없으므로 죽었다고 표현할 수도 없다"며 "한국 음악이 음악 자체로서 크게 칭찬받은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신파적인 한국 TV 드라마의 서구권 진출도 부진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협뉴스

평화마을 찾아가는 소록도 생명문학축전

창작21작가회, 28~29일 고흥군 소록도 주민자치회관 강당

'창작21작가회'(대표 문창길)는 오는 28~29일 이들 동안 고흥군 소록도 주민자치회관 강당에서 '2007 평화마을을 찾아가는 소록도 생명문학축전'을 개최한다.

창작21작가회는 지난 2004년부터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문학제'를 지향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처인 '나눔의 집', 휴전선 경계지역의 마을, 한국전쟁 피해지역 등을 찾아 문학제를 열고 있다. 소록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and '영화야니' (Movie Night) featuring various film poster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nd '트랜스포머'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nd '해리포터'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s like '트랜스포머' and '라피투이'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listing movies like '미이' and '트랜스포머' with showtim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제일시네마' (Jeil Cinema) listing movies like '화려한 휴가' and '해리포터' with showtimes and prices.